2018







COVER STORY



새봄과 함께 시작된 양양군 여성회관 교육교실 댄<u>스스포츠</u>반



양양소식 · 275호

- | 발행일 2018년 3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3100000

- 04 기획취재 양양의 봄날을 누비다
- 06 ISSUE&PEOPLE 지역주민이 만드는 진짜여행 관광두레사업 김석기PD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조선시대 역

6)2)6tot

10 뉴스 브리핑

- 10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익사업
- 12 양양문화제. 6월21일~6월23일까지 3일간 개최
- 13 양양여성새일센터,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 남대천재첩협회 · 물치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
- 14 가족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금연하세요 불법 산림훼손 행위 뿌리 뽑는다
- 15 양양의 이모저모
- 16 의정소식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활동

Onrotot

- 18 SNS 기자단 소식 SNS기자가 알리는 양양의 봄소식
- 19 이게 최고자니 제철음식 봄나물로 몸보신하세요
- 20 문득, 양양 꽃길만 걷게 해줄게 _ 남대천둔치길 & 송이조각공원

6=1216t6t

- 21 책이야기 딸에 대하여 / 이달의 신간
- 23 정보꾸러미 3월 추천 일자리. 양양교육도서관 행사안내
- 24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산불조심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아 함께 걷는 낭만의 길

해파랑길은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국내 최장거리 동해안 탐방로이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을 1코스 시작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50코스 종점으로하여 770Km의 걷기 길이 연결되어 있다.

해파랑길 양양구간은 지경해변에서 시작해 속초로 넘어가기 전 물치항 까지 4개의 코스(41코스~44코스, 각10~13Km. 3~4시간 소요)이다. 낭만이 가득한 양양의 해파랑 길 중 봄날 걷기 좋은 구간을 소개해본다.

지경해변에서 죽도해변 까지

해파랑길 중 지경리에서 죽도해변까지 이르는 길은 마을, 항구 그리고 바다가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다. 양양의 최남단 지경마을은 바다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다. 지경을 지나면 '고래사냥' 촬영지로 유명한 남애항구가 나온다. 기암절벽과 푸른동해를 한눈에 전망할수 있는 남애전망대도 꼭 걸어보길 바란다. 휴휴암을 지나 탁트인 바다를 길동무 삼아 걷다보면 어느새 서핑천국 죽도해변을 만날 수 있다. 형형색색의 보드와 멋지게 파도를 타는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활력이 온몸 가득히 느껴진다. 이곳에서는 숨은 맛집을 찾아 도보여행 중 식도락여행을 즐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용호리낭만가도에서 물치 해맞이 공원 까지

해파랑길 44코스중에서 용호리 낭만가도에서 물치항구간을 걸어보자

용호리 낭만가도 조망대부터 물치항까지 왕복하여 1시간 3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용호리 낭만가도 조망대에서 바라보면 속초 대포항부터 낙산 사 해수관음상까지 탁 트인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낭만가도를 걷다보면 몽돌소리길로 접어든다.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꼽힌 몽돌이 파도에 휩쓸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몽돌해변을 지나면 송이등대로 유명한 물치항에 도착한다. 최근 조성된 물치 해맞이 공원에서 잠깐의 휴식과 함께 바다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다. 그 외에도 낭만가도 중간 중간에는 벤치 등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바다를 즐길 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터져 오르는 봄 새싹을 만날 수 있는 산소길

산과 바다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양양에서 바닷 길을 걸었다면 이번에는 산소 가득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숲길을 추천해본다. 양양사람 중 아는 사람만 찾고 있다는 산책 길.

올해 더 건강한 한해를 보내고 싶다면 양양의 숲길을 걸어보자.

모노골 산림욕장 소나무 숲길

봄날 터져 오르는 새싹을 만날 수 있는 봄 트래킹코스로 소개할 곳은 모노골 삼림욕장 소나무 숲길이다. A코스 1.8Km, B코스 2.8Km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로 걷다보면 모노골 샘터를 만 날 수 있다. 한켠에는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샘터에서 목을 축이며 지친다리를 풀어주기에 알맞은 장소이다. 숲길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계단은 걷기운동의 힘을 북 돋아주며 숲 중간에 조성된 휴양공간에서는 잠시 앉아 숲을 즐길 수도 있다.



혼자 걸어도 좋고 가족과 함께 하여도 좋다.

따뜻한 봄날 건강하게 걷고 싶다면 푸른 들과 울창한 송림, 조용한 숲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모노골을 추천한다.

남대천, 구탄봉가는 길

어머니의 강 남대천,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연어처럼, 구룡령과 응 복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들도 양양의 속살을 적시며 이곳으로 모여 든다. 양양의 구석구석까지 실핏줄처럼 퍼져있던 생명의 물줄기 들은 그렇게 남대천과 만난다.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한 남대천. 그 래서 그 길을 따라 가는 여정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남대천 길을 걸으며 푸르미 아파트를 지나면 구탄봉 산책로에 이른다. 도심에 자리한 산치고는 그 골도 제법 깊어 걷는 재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산허리를 타고 돌기도하고, 작은 개울을 지나기도 하는 구탄봉 산책로는 걷는 재미와 숲의 매력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길이다.



구탄봉의 조금 더 수월한 코스를 원한다면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 등산로를 따라 $10\sim20$ 분정도면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다. 잘 다듬어진 산책로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구탄봉 정상에 오르면 양양시가지와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구탄봉 전망대가 있다. 맑은 날은 양양의 전경과 남대천 동해바다를 흐린날은 짙은 안개와 운해를 만날 수 있는 양양의 구탄봉은 365일 매일을 다른 모습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숲이주는 건강함을 더하여 봄날 트래킹 최적의 코스이다.

/ ISSUE & PEOPLE /

지역주민이 만드는 진짜여행

관광두레사업 김석기 PD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난 관광사업 창업과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여 최대 3년차 까지 선진 지견학과 창업실무 교육, 맞춤형 멘토링,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지원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성을 갖춘 사업체로 성장 하도록 견인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2017년 관공두레사업으로 용천청년회와 송천떡마을청년회, 서프시티협동조합 3개 주민사업체가 올해 창업을 목표로 참여중이며, 그 중간에 보이지 않게 뛰고 있는 관광두레사업 PD김석기씨가 있다.



관공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주민과 전문가 사이에서 중간 지원 역할

2015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로 귀촌한 김석기씨는 귀촌 후 이전 직장에서의 '네파아 웃도어스쿨'이라는 마케팅활동을 바탕삼아 마을을 알리기 위해 어성전 부터 법수치리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걷는 계곡 트레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일을 할수록 더욱 양양에 대하여 공부하고 알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을 만났으며, 결국 지역에 단순 거주자가 아닌 진짜 양양군민으로서 지역에 스며들어야 함을 깨닫게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역주민이 만드는 진짜 여행'이라는 관광두레사업의 슬로건에 끌려 진짜 지역민으로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석기씨는 관광두레 사업 PD로 발탁된 후 지역 현장에서 주민사업체 발굴과조직화, 창업과 경영개선지원 등 총괄진행을 하고 있고, 관공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주민과 전문가 사이에서 중간지원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주민들과 연락하고 만나는 일이며, 시간과 일정에 쫓겨 더 자주만나보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 하고 있었다.

고유의 색깔을 살린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사업

서핑과 양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프시티 협동조합

최근 몇 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핑, 외국의 유명 해변에서 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레저활동이 지금 국내 최고의 여름레포츠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유명세를 타며 우후죽순 생겨나는 서핑샵과 해변의 과밀화 현상, 무분별한 개발 ,치솟는 땅값으로 서핑을 처음 전파했던 로컬들이 지역에서 살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서프시티 협동조합은 서핑이 좋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양양을 사랑하고 죽도에 터를 잡은 서퍼들이었기에 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으며, 서핑의 본질과 서핑의 문화부터 제대로 뿌리내리게 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서프시티 협동조합의 목표는 양양의 서핑샵들과 지역식당 및 숙박시설 등 서핑에 연관된 여러 사업들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광두레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핑체험프로그램은 단순히 수익만을 위한 목표가 아닌 올바른 서핑문화의 장착에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서핑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인포센터의 역할과 기존에 서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하던 페스티벌과 봉사활동들도 이어 나감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송천 떡마을 캠핑장

송천떡으로 유명한 송천떡마을은 현재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송천떡마을 성장을 더욱 곤고히 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귀촌 주민 및 노인층의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존 야영장을 활용하여 캠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관광두레사업을 통해서 캠핑전문가의 멘토링 진단을 받고 캠핑사업의 타당성을 검증 받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명확한 업무분장과 주요고객층 분석을 통한 맟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국적으로인정받는 캠핑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천리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원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결국에는 마을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예비으뜸두레 선정, 용천리 곰마을 청년들

서면 용천리는 예로부터 복숭아와 배 과수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온 마을이다. 최근 들어 고령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시장과 길거리판매 외에는 판로가 없어 매출의 상승세가 다소 정체되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용천리의 농가 2세대로 구성된 8명의 청년들이 모였고, 2017년에 관광두레사업에 지 원·선발되었다.

처음 만남부터 가공식품, 마을 관광프로그램, 복숭아 생과를 활용한 음식, 팜파티 등 용천리를 활성화시키고자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났으며, 전문가 멘토링이 진행되면서 복숭 아를 활용한 디저트 개발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서울의 유명카페등을 견학하며 속이 쓰리도록 디저트를 먹어보고, 전문 셰프들이 개발한 레시피를 연습해가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가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무서운 열정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자부담면제 혜택을 받는 '예비으뜸두레'에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 3월 11일에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마르쉐 장터에 출점하여, 청년들이 개발한 디저트 메뉴를 선보이는 파일럿 사업을 추진, 고객의 뜨거운 반응에 조기 완판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아직은 영업장 및 조리장 확보도등 디저트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운 점도 있으나 열정으로 뭉친 용천리 곰마을 청년들이기에 우직하게 잘 이끌어 나갈것이라 믿고 응원을 보낸다.

김석기PD는 "올해 첫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앞으로 양양에서 커나갈 우리아이가 굳이 양양을 떠나지 않고도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3대가 함께 지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양양의 미래를 말했다.

관광두레사업 참여희망 주민사업체 수시모집 중 / 문의 : 김석기 PD (010-8878-3895 /ksk3895@gmail.com)

조선시대 양양부 상운도 찰방(祥雲道察訪)은 동북방면 교통중심기관으로 15개 속역을 관할



강선역 터



상유관 E



상운역 터



연창역 터

고문헌을 통한 상운도 위상(祥雲道位相)을 알아보다.

상운도(祥雲道)는 고려시대에 명주도(溟州道)의 관할이었으나, 조선전기 세종 연간에는 대창도(大昌道)에 소속되었다. 이후 세조 8년(1462)에 상운도로 독립되어 동북 방면으로 오가는 16개의 속역(屬驛) 중 상운역을 본역(本驛)으로 하여 양양(襄陽)—간성(杆城)—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谷)의 교통로를 관할하는 역도 체제(驛道體制)로써 역승(驛丞)이 관할하다가, 중종 30년(1535) 이후에는 찰방(察訪)이 파견되어 역무를 관장하였다.

역(驛)은 역관(驛館)·역참(驛站)·우역(郵驛)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찰방의 역무(驛務)는 주로 중앙과 지방관아 사이의 공문서를 전달하고 관수물자를 운송하며 사신왕래에 따른 숙박편의 등을 제공하는 한편 교통로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보고하기도 했다.

또한 역은 대략 30리마다 설치되어 역마(驛馬)와 숙박시설

(宿泊施設)을 구비하고 출장관원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 하였는데, 반드시 징표로 마패(馬牌)를 제시하여야한다. 그리고일반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의 요지 또는 인가가 적은 곳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원(院)을 설치했는데, 다수 서민들은 사사로이 운영하는 주막(洒幕)을 이용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 역원조(驛院條)에 "상운역(祥雲驛)은 부 남쪽 25리에 있다. 본도(本道)를 잇는 속역(屬驛) 이 15인데, 연창(連倉) · 오색(五色) · 강선(降仙) · 인구(麟丘) · 죽모(竹苞) · 청간(淸澗) · 운근(雲根) · 명파(明波) · 대강(大康) · 고잠(高岑) · 양진(養珍) · 조진(朝珍) · 등로(登路) · 거풍(巨 · 정덕(貞德)이다. 승(丞) 1인이 있다."고 했다. 그 후 오색역(五色驛)은 미시파령(彌時坡嶺)의 길이 열리면서 폐쇄하고 간성군 원암역(元岩驛)으로 옮겼지만 상운도 속역이었다.

양양부 소재 역원(驛院)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다.

『여지도서』와『관동읍지』에 역이 소재한 마을의 이름은 '상운역리 · 연창역리 · 인구역리'라 하였는데 강선역리는 없고 '강선역'으로 만 기록되어 있다.

상운도(祥雲道)에는 역승(驛丞)의 근무처인 상운관(祥雲館)이 있었는데, 현종 12년(1671년)에 역승 송기태(宋基泰, 의암 송시열의 양자)가 길지인 연창역리로 역관을 옮기고 상운역화풍관(祥雲驛和風館)이라 편액(扁額)하였다. 그 후 2회에 걸쳐 이전하였는데, 경 종 3년(1723)에 찰방 엄한중(嚴漢重)이 관우(館宇)를 옮기고 당명(堂名)을 휼운당 雲堂)으로, 1824년에는 찰방 박종언(朴宗彦)이 다시 짓고 와선당(臥仙堂)이라 이름하고 외청사(外廳事)로 하였다.

강선역(降仙驛) 관문에서 북쪽 20리 거리에 있다. 대마 2필, 복마 4필, 역리 192명, 역노 7명, 역비 8명이다. 연창역(連倉驛) 관문에서 동쪽 5리 거리에 있으며, 찰방(察訪)의 우관(郵館)이 있는데, 대마 3필, 복마 8필, 역리 270명, 역노 130명, 역비 70명이다. 상운역(祥雲驛) 관문에서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3필(匹), 복마(卜馬) 8필(匹), 역리(驛東) 154명, 역노(驛奴) 30명, 역비(驛塊) 29명이다. 인구역(麟丘驛) 관문에서 남쪽 50리 거리에 있다. 대마 2필, 복마 3필, 역리 70명, 역노81명, 역비 61명이다.

양양부 역(驛)에는 시인묵객들이 남긴 시문(詩文)이 있다.

이 지역 역(驛)에는 많은 관리와 시인묵객들이 글을 남겼는데 대표적 인물들이 추강 남효온·희암 채팽윤·우암 송시열·삼연 김 창흡·해좌 정범조 등이며 35편의 시문이 현존한다. 선조의 셋째 서녀(庶女) 정숙옹주(貞淑翁主)의 남편 낙전당 신익성(樂全堂申 翊聖)이 남긴 상운역 시 한편을 소개한다.

祥雲驛畔萬株松/상운역반만주송/상운역 주변의 만 그루 소나무 松外滄溟浪作峯/송외창명랑작봉/소나무 밖 큰 바다 파도 산을 이루네 醉倚松根明月夜/취의송근명월야/취해 소나무 뿌리에 기대인 밝은 달 밤蓬萊笙鶴□相逢/봉래생학당상봉/봉래산 학 탄 신선 행여 만나려나.

이후 고종 33년(1896) 1월 18일 칙령 제9호 "각 역의 찰방과 역속의 폐지에 관한 건"에 따라 모두 철폐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다.

(글·사진: 양양문화원)



양양부 소재 4개역 분포도



양양읍 연창리의 상운관 위치와 상운관 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마패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익사업

20년간 추진해온 정책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어불성설 TF팀은 민간전문위원회 운영지원, 환경단체 및 양양군 의견수렴, 현지조사 등 공개적으로 운영

지난 23일, 환경부 적폐청산위원회(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가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내에 비밀 TF팀을 구성·운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조작했다"며, 환경부에 허가를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동의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은 환경부의 케이블카 TF팀은 비밀리에 운영되지 않았으며, 민간전문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환경단체(당시 국립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및 양양군 의견수렴, 현지조사 지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되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

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특정 정부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 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며, 국정조사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은 정상적인 사업이므로 '적 폐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100차 국립공원위원회(12.11.20)에서 결정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심의사업 절차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검토를 위해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전 도민 · 전 군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민간전문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서면 검토하고, 세 차례 현지 조사와 시민환경단체 공청회 참관, 시민환경단체 및 사업자 의 견수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4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를 통해 기존 자연 공원 이용 유형을 다원화해 국민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 · 노약자 등에 대한 공원이용 기회 부여와 부수적 인 등산객 분산효과로 환경훼손 저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도 국립공원을 찾는 기회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악산국립공원 내 삭도시범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군은 이렇게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우리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였고, 5차례 갈등조정협 의회, 국회 국정감사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환경영향 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 통보를 이끌어냈다.

또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이미 받은 상태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서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적폐청산위원회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함으로서 사실 왜곡과 사업추진에 제동이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군은 전 군민적 공감대를 바 탕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 획이다.



잘못된 보도 내용. 이건 이렇습니다

- 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자연환경영향평가서 및 공원계획변경(안)이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다(아고산대, 산양개체수 1마리 제시)는 의견에 대해서
- 우리나라에서의 아고산대 구분기준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기후 · 식생 · 바람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에서는 설악산 아고산대를 1,500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설악산에서 아고산성 식물(분비나무 등)이 우점하여 식생을 형성하고 있는 해발 영역은 1,500m 이상임. 그 이하의해발에서는 낙엽수(신갈나무 등)가 유점한 가운데 분비나무등의 아고산성 식물이 산재해 있음. 특히, 오색삭도 상부정류장과 산책로 등은 분비나무와 신갈나무가 거의 20%:80% 정도의 혼효비율을 나타고 있어 아고산대 식생이라고 하기엔역부족임
- 자연환경영향검토 시 산양조사는 4차례 현지조사와 9대의 센서카메라를 설치해 산양의 서식을 확인하였고, 산양정 밀조사를 실시하여 70개 지역 121개의 지점에서 배설물을 발견하였고 2개 지역에서 족흔을 발견하였음. 사업대상지와 지주능선에서의 산양 흔적은 주변지역에 비해 매우 빈약한 편으로 독주골 계곡 및 인접 능선부에 집중적으로 산양 서식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양의 서식현황을 좀 더 관찰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자연환경영향검토 시의 조사결과에 6차례 정밀조사 (서식 흔적조사 및 무인센서 카메라 조사)결과를 누적하여 분 석하였으므로, 두 조사간 시간적 · 공간적 차이가 크므로 개 체수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함. 단, 자연환경영향평가 시 산양 개체수 분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체 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 환경영향평가 시 정밀조사 결과는 설악산 전체가 산양이 서식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많은 개체수가 서식하고 있는 곳은 간접영향권인 독주골, 설악골로 나타나 자연환경영향 검토 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 설악산 전체가 서식지 적합성이 높다는 것은 산양이 영향을 받았을 때 그만큼 회피하여 서식할 곳이 많다는 것으로, 산양은 공사중 잠시 회피했다가 안정되면 다시 본래의 서식지로 돌아온다는 것은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알수있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사후모니터링

결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삭도 사업으로 인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및 번식활 동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 한다거나 고립화 등의 피해 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음

- ② 사업구간이 IUCN 그린리스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되었음에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 일본 국립공원은 현재 24개소의 케이블카를 운영중이며, 설악산과 동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4개 국립공원에서 8개 소의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배런국립공원 스카이레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블마운틴, 캐나다 밴프, 스페인의 테이데 국립 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고, 폴란드—슬로바키아 타트라국립공원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내에 케이블카가 운행 중에 있으며 영국령 지브랄타 섬의 케이블카는 생물권보전지역카테고리 I a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사례로서세계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수많은 케이블카가 설치 · 운행 중에 있음.

③ 경제성보고서 조작에 대해서

- 관련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경제성보고서의 수치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린 것이 아닌 편집상 수행기관 표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정된 보고서로 민간전문위원회 검토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됨.
- ④ 감사원 감사결과 최대 36억 2,697만여 원의 예산손실 초 래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는 주장에 대해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외재구매를 요청하여 설계 · 제작업체와 계약한 것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약 사업추진 이 어려울 경우 이미 지급한 선금급은 정산하도록 명시 되어 있음.
- 감사원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통보된 시점에서 감사 시행,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예산손실 초래가 우려된다고 했으나 양양군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따라 정 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예산손실 문제는 전혀 없으며, 단 이중으로 지급된 설계비 2억 7815만여 원 상당의 금액을 감액 처리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처리 완료하였음.

양양문화제, 6월 21일 ~ 6월 23일까지 3일간 개최

문화예술 등 4개 분야 군민문화상 후보자 4월 1일부터 추천 · 접수

제40회 양양문화제가 6월 21부터 23일까지 사흘 간 지역문화의 발상지인 남대천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윤여준, 이하 '위원회')는 지난 23일, 양양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제40회 양양문화제 일정과 세부행사 계획,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40회 양양문화제'는 6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남대천둔치와 문화복지회관 등에서 3일간 진행된다. 22일과 23일에는 군민 결속과 화합을 위한 읍 · 면 대항 체육대회와 민속놀이가 병행될 예정이다.

양양문화제는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양양지역 대표 향토문화축제이다. 선사문화와 불교문화, 호국문화가 공존하는 양양의 문화적 독창성을 소개하고, 군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 하고자 바쁜 농사일이 마무리되는 6월 무렵 개최해오고 있다. 주최측은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행사와 신석기인 가장행렬, 양 주방어사 · 대포수군만호행차, 상복골농요 및 수동골상여소리 민속시연, 전통민속놀이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여준 위원장은 "올해로 40회째를 맞는 양양문화제는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축제이자,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즐기는 화합의 한마당"이라며, "양양문화제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화합과 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양양문화제를 앞두고 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 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문화상 후보 자를 추천 · 접수받는다.

추천부문은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등 5개 부문으로 양양군민 또는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둔 사람 만 추천이 가능하다.

군민문화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이나 사회단체, 읍 · 면에서는 후보자 접수기간인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각 기 관장의 추천서와 공적조서, 이력서 등을 구비해 군청 문화관광 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문별 3인씩 15인의 심사위원 회를 구성,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사항 등을 심사 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패는 6월 21일 오후 5시 양양문화제 개회식에서 시상한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Tel. 033-670-2728



양양여성새일센터,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양양군 · (주)온새미로라이프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도 체결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양양새일센터')가 지난 22일 여성취업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여성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와 취업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한 자리에서 현장면접과 간담회 등을 가지고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6년에 포월1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온새미로라이프(대표 전인정)는 천연원료를 사용해 바디 · 두피 미스트, 과일 · 야채 세정제, 페브리즈 대용품, 탈취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FDA 승인을 받아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충진작업과 포장공정에 참여할 7명의 여성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양양새일센터에 구인을 의뢰하였으며, 새일센터에 등록 된 구직여성 13명이 이날 면접에 참여했다.

양양새일센터는 이력서 작성 코칭, 직장생활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연출법, 취업지원용 사진촬영 등 취업대비교육을 진행해 왔다. 면접 후에는 양양새일센터와 ㈜온새미로라이프가 여



성친화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양새일센터는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 발굴하여 지원하고, ㈜ 온새미로라이프는 채용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남대천재첩협회·물치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

어장환경 개선, 자원조성 등에서 성과 인정, 1억원의 상사업비 지원

강원도가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어업공동체 8곳을 선정한 가운데, 양양군 남대천재첩협회와 물치어촌계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국비 등 육성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가 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어업분쟁 해소와 어업인 소 득향상, 어장관리, 질서유지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은 활동실적에 따라 선진, 자립, 모범, 협동, 참여 등급으로 결정된다.

강원도가 선정한 2018년도 우수공동체는 모범 4개소, 협동 4 개소로 모범등급에는 1억원, 협동등급에는 8천만원의 육성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양양군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2개 자율관리어업

체는 모두 모범등급을 부여받아 각각 1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사업비로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수면어업 공동체인 남대천재첩협회는 모두 2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어업체로 청정 남대천을 기반으로 어장환경 개선과 종묘 방류, 친환경 수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었다. 재첩협회는 이번에지원받는 상사업비로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5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물치어촌계는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업금지기간 운영, 어장 청소, 수산종묘 배양 및 방류 등 자원조성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었다. 물치어촌계는 1억원의 사업비로 활어 공동판매장으로 연결되는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족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금연하세요



올해부터 해수욕장도 금연구역에 포함, 금연 과태료 3만원→5만원 인상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른 우리군 흡연율은 21.0%로 전국 평균 22.5%보다 낮기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2020년까지 흡연율을 19%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연홍보 및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금연구역시설 지도 ·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기초건강 측정 후 6개월 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금연상담사와의 1:1 개별상담 및 교육은 물론, 금연보조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내 1,810개소(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160개소, 양양군 조례에 의한 지정시설 364개소, 담배판매지정소매인 28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이 수시점검에 나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금연 인지도 개선을 위해 공중화장실, 버스터미널 등 금연 취약지역에 태양광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음성이 지원되는 금연알림벨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외부에 금연홍보 광고를 게 시해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흡연에 의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금연구역에 새로 추가되며, 금연구역 흡연 과 태료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해수욕장 개장 이전 인 7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Tel. 033-670-2556

불법 산림훼손 행위 뿌리 뽑는다!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 해마다 증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단속반 꾸려 시기별·유형별로 계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양양군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입건사례를 보면 2015년 17건에서 2016년 19건, 2017년 2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1.7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피해도 1억 2천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48건(3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토석채취, 무허가벌채, 산불비화, 불법굴취로 인한 피해도 9건이 있었다.

특히 우리군은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2016, 12월)와 서울양 양고속도로 개통(2017, 6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수 요가 몰리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읍 · 면별 지정 단속반을 편성해 시기별 · 계도유형별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빙기에 해당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춘기 농업 준비에 따른 불법개간, 불법 농로개설 행위와 함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용수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 불법굴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날이 따뜻해지는 5월 1일부터는 야영객들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야영시설 운영 및 설치행위, 산림 내각종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 1. 제19회 양양군민 건강달리기대회(3.1)
- 2. 건강한 한해되세요~!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3.2)
- 3. 수동골상여소리, 현남면 임호정리에서 전통장례 재현(3.2)
- 4. 올해도 풍년!!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3.7)
- 5.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전을 선사하세요 안전점검의 날(3.9)
- 6. 37회 양양군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3.17)
- 7. 민방위의 날 낙산요양원 화재대피훈련(3.21)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활동 현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6건의 조례안 심사

지난 3월 20일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 회를 개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였으며, 21일부터 23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1차, 2차 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 질의 · 답변이 있었고,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가결 하였다. 일반회계 수정의결내역은 산림녹지과 소관 '범부리 마을안길변 수목식재 사업'과 관련된 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쇼핑몰운영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 총 2건의 사업이다. 총 2건의 사업에서 7천7백7십8만8천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수정 편성하였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양양군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양양군의회 이기용 의장은 3월 19일(월) 의장실에서 제229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7회계연도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 장을 수여하였다.

이기용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은 양양군민이 준 소중한 권리로 양양군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양양군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주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제 7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심의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2017년 양양군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 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양양군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양양군수는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NS 기자단 소식



SNS기자가 알리는 양양의 봄소식 봄이왔네 봄이와~ 우리들의 마음에도~~!! 양양군 블로그에 가득한 봄소식들~

구탄봉에 봄이 찾아오다.

설악산 대청봉 아래 남대천이 흐르는 양양 따스한 봄햇살에 영상 19도를 가리키는 봄기원이 완연하여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있는 구탄봉 산책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봄 꽃 진달래와 생강나무꽃을 전해드립니다.





양양의 봄을 알리는 봄나물

우수, 경칩에 이어 춘분도 지났건만 아직 쌀쌀한 날씨.. 봄이 오는 소리에 양양의 농부들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정작 농사일은 시작도 못하고 있지만 양양의 산과 들엔 이미 봄나물이 지천으로 돋아나고 있답니다.

감나무 밑둥에 사이좋게 돋아나고 있는 파드득나물과 참당귀싹을 비롯하여 봄나물의 대표 달래, 냉이, 씀바귀, 머위, 부추 돌나물 고들빼기 원추리 등등 청정 양양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봄나물, 산나물은 끝자리 날자 4일,9일 닷새마다 양양전통시장일원에서 열리는 양양5일장 에서 만나 보실 수 있답니다.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양양군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답니다.

글 · 사진 : SNS 홍보기자단 안영국 SNS 홍보기자단 김양희

이기(이게) 최고자니!

제철음식 봄나물로 몸보신하세요~!

"봄봄봄봄, 봄이왔어요" 콧노래가 절로나오는 봄날 장터에나가면 봄향기가 가득한 제철 봄나물로 가득하다. 긴 추위를 이겨낸 봄나물은 다른 철의 음식에 비해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양양의 산과 들에 이미 지천으로 올라오고 있는 봄나물.

오늘 저녁 밥상은 보기만 해도 건강 가득한 봄나물을 올려보자.



신선한 자연의 향이 더욱 매력적인 양양산채

설악산을 비롯한 양양의 84.3%가 산림인 만큼 양양은 산채로 유명하다. 특히 양양의 산채는 주생육기인 2월~6월 짧은 일조시간 으로 부드럽고 향이 진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봄산채의 제왕으로 불리는 엄두릅은 봄철 연한 새순을 채취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갖은 양념을 하여 나물로 먹으면 독특한 향기와 맛으로 떨어졌던 입맛을 돋우는 대표적인 건강음식이다. 개두릅 엉개나물이라고도 불리며 양양의 자연산 엄두릅은 그 맛과향이 더욱 깊다.

또한 알싸한 마늘향과 맛이 매력적인 산마늘은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며 삼겹살이나 육류와 함께 먹으면 쌉쌀하면서도 느끼함을 줄여 그 맛이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봄철 건강 산채이다.

그 외에도 양양의 대표적인 산채로는 참두릅.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눈 개승마. 얼러지 등이 있다.







양양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봄나물, 양양몰 인터넷 주문도 OK

비타민 A,C가 풍부하여 봄철 춘곤증을 예방하고 몸에 양기를 불어 넣어주는 냉이와 달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높아 중년 여성의 보약인 쑥,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취나물, 칼로리가 낮지만 다른 나물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걱정 없는 두릅, 동의 보감에서 피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염증을 낫게 하여 비염, 기관지염에 좋다는 씀바귀까지 향기만으로도 건강해 질 것 같은 양양의 봄나물들은 4일, 9일 닷새마다 양양장날에 만나 볼 수 있다. 그리고 4월 1일 부터 5월 20일까지 양양몰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3월말이면 참나물을 시작으로 본격 출하되는 양양의 봄나물은 쌈으로 먹어도 좋고 나물무침, 볶음 등으로 먹어도 좋다. 말리거나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면 일년 내내 봄향기를 느낄 수도 있다.

Tip 구입: 양양몰(http://www.yangyangmall.co.kr 양양군 농·특산물 직거래 쇼핑몰) ☎670-2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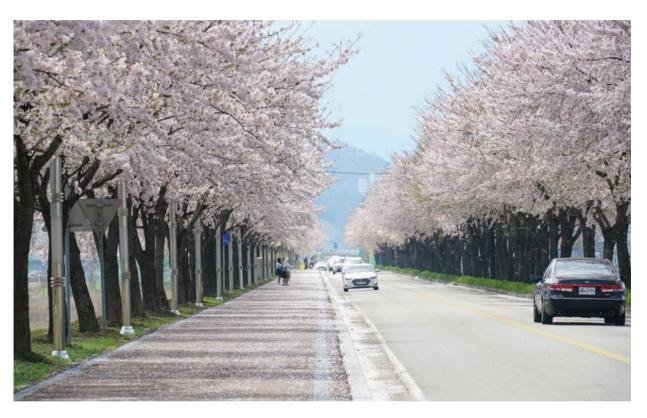
0756t 世長, 065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남대천둔치길& 송이조각공원



어떤 여행은 '문득' 시작된다. 문득 떠오르는 풍경, 문득 생각나는 추억, 문득 떠나고 싶은 충동. 창문 밖 너머 세상에는 마법처럼 꽃망울이 터지며 봄이 성큼 다가왔다. 살랑 살랑 내 마음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문득 오늘 하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진다.



봄을 담은 꽃길 양양남대천 둔치길

양양대교와 낙산대교를 잇는 도로 양쪽에 심은 500여본의 벚나무가 3 km 직선도로를 따라 봄날의 진 풍경을 이루고 있다. 탐스럽게 피어난 벚꽃들을 감상하며 걷다보니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뎌진다.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 벚꽃길을 걸으며 하나하나 흩날리듯 떨어지는 꽃비를 맞으면 이 길은 오직 우리 둘만의 길인 듯 한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다

활짝피어 화려하게 물들었다가 봄비가 내리면 푸른 잎으로 변해버리는 짧은 순간이기에 더욱 더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양양남대천 둔치 벚꽃길이다.



남대천 둔치길



현산공원



오색족욕체험장



봄꽃 닮은 그대와 봄소풍을 떠나다 ..송이조각공원

남대천둔치 벚꽃길을 걷다보니 푸른 잔디가 드넓게 펼쳐져있는 송이 조각공원이 눈에 들어온다. 지친 다리도 쉴 겸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풀어 본다. 눈앞에 펼쳐진 벚꽃길을 보면서 먹는 도시락은 일등급 레 스토랑의 코스요리가 부럽지 않다.

지침없이 뛰어노는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 남대천 생태공원 데크를 누비며 곤충과 식물을 채집하는 아이들, 마치 동화 같은 풍경들을 가슴속에 담으며 봄꽃을 닮은 그대와함께 봄소풍을 즐겨본다.

해질 무렵 생각도 못한 야간조명이 켜진다. 문득 떠난 양양의 꽃길을 걸으며 마법과 같은 하루를 선물 받았다. 야간 조명덕분에 더욱 매력적인 이 길을 걸으며 올 한해 그녀가 꽃길만 걷길 소원해 본다.



키워드로 보는 Tip

양양 벚꽃길 – ① 현산공원: 해마다 4월이면 현산공원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 벚꽃에 둘려 쌓여 한층 낭만적인 공간이 된다. 양양군청 옆에 위치해 있으며 운동기구와 휴식공간이 있는 근린공원으로 꽃피는 봄날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② 양양향교: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었다. 양양읍 임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전제는 봄과 가을 상정일에 거행한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이면 이는 사람만이 찾고 있는 숨은 벚꽃 명소이다.

③ 오색족욕체험장: 4월 오색을 찾게 된다면 오색족욕체험장을 들려보자. 만개한 벚꽃이래 앉아 꽃잎이 떠있는 물에 지친 발을 담글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할수 있다.

남대천생태공원- 남대천 생태환경을 관찰 할 수 있는 폭2m, 길이 659m의 데크로드와 6개소의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데크로드 인근에서 갈대, 물억새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연어의 모천인 남대천에 생태공원이 조성돼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및 생태관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책 이야기

혐오와 배제의 세계와 마주한 엄마의 성장소설

문학성과 다양성, 참신성을 기치로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예들의 작품을 엄선한 「오늘의 젊은 작가」의 열일곱 번 째 작품입니다.

힘없는 이들의 소리 없는 고통을 내부의 시선으로, 무뚝뚝한 뚝심의 언어로 그린다는 평을 받으며 개성을 인정받아 온 작가 김혜진의 이번 작품은 딸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소수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화자인 어머니는 딸을 직접 돌보기 위해 교사 직업을 그만두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배장이, 보험 세일즈 등을 거쳐 예순이 넘은 현재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대학 강사로 지식 노동자이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동성애자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보는 '젠'은 젊은 날 해외에서 공부하며 한국계 입양이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였지만, 지금은 무연고자치매 노인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회와 불화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않는 딸과 갈등하던 어머니가 딸이 겪는 차별과 젠이 당하는 부당함을 보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은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작가는 결혼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 질 낮은 노동에 따른 경제적 빈곤과 남들과 다름에서 겪는 폭력 및 차별, 약자에 대한 배척 등을 담담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에 대하여/ 김혜진 지음/ 민음사 / 2017



더불어 읽으면 좋은[册]

년생 김지영 조남주 지음, 민음사, 2016 바깥은 여름 김애란 지음, 문학동네, 2017 현남오빠에게 조남주 지음, 다산책방, 2017

책 속 밑줄 긋기

「그리고 아프게 깨달았다. 이대로 딸애를 계속 당기기만 하면 결국 이 팽팽하고 위태로운 끈이 끊어지고 말겠구나. 이대로 딸을 잃고 말겠구나. 그러나 그게 이해를 뜻하는 건 아니다. 동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내가 쥐고 있던 끈을 느슨하게 푼 것뿐이다. 딸애가 조금 더 멀리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양보한 것뿐이다. 기대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또 무언가를 버리고 계속 버리면서 물러선 것뿐이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딸애는 정말 모르는 걸까. 모른 척하는 걸까. 모르고 싶은 걸까. 』(p. 68)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불행 피하기 기술

롤프 도벨리 지음/ 인플루엔셜 / 2018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준다는 수많은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 답 들을 따라 해도 내 인생이 그다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용히 생각의 변 화를 일으킬 때입니다. 냉철한 기업가, 능력 있는 투자가, 인기 있는 강연가, 전 세계를 누 비는 지식인답게 롤프 도벨리는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라는 철학의 오랜 질문에 대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접 근법을 제안합니다.



매머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인류의 역사

디터 뵈게 지음 / 토토북 / 2018

이 책은 빙하기부터 현재까지의 세계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낸 책입니다. 매머드 할아버지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세계사의 흐름과 변화를 보여줍니다. 다른 역사책과 달리 이 책은 딱딱하지 않고 유머러스한 글과 예술성 높은 삽화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레 세계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있게 돕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은 풍성한 역사 지식은 물론 다채로운 삶의 풍경을 그려 보는 따뜻한 상상력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3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3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시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디엠면세점	8명	면세점판매원 (중국어,영어가능자)	항공기 스케줄근무	항공기 1편당 50,000원
㈜티에스케이워터	1명	소각로조작원	3교대	연2,400만원
푸른하늘환경(주)	1명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09:00~18:00 (주5일)	연2,800만원
설악송이포크	4명	정육기공원	08:30~18:30 (주5일)	월160만원 이상
농업회사법인 신토불이(주)	2명	농업단순종시원 (쑥 가공포장)	시간협의 (주6일)	시급 7,530원
양우철물건재	1명	배송납품운전원 (자재배송)	시간협의 (주6일)	월170만원이상 (협의)
동양농자재	2명	비닐하우스시공원	09:00~18:00 (협의)	월200만원 이상
하늘과바다사이	1명	음료조리원(바리스타)	10:00~18:00 (주5일)	시급 7,530원 이상
양양국제공항호텔	1명	프론트시무원	3교대 (주5일)	월160만원 이상
강릉최가두부	2명	두부생산직	08:00~17:00 (주6일)	월200만원
정인회식당	1명	홀써빙	09:00~21:00	1일 90,000원
㈜한샘개발 낙산비치호텔	2명	호텔청소원	09:00~18:00 (주6일)	월196만원 이상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식회사 연어원	3명	생산직	주5일 09:00~18:00	시급 7,530원이 상
꿈을주는어린이집	1명	보육교사	주5일 15:30~19:30	월 83만원이상
솔로몬어린이집	1명	조리원	주5일 09:30~12:30	월 60만원이상
㈜월드팜	1명	조리 및 단순시무 보조	주6일 08:30~17:30	월 170만원이상
디엠면세점	5명	판매원	주5일 스케줄근무	시급 25,000원 이상
효담노인복지센터	1명	사회복지사	주5일 09:00~17:00	협이후
	10명	조리사	주5일 08:30~17:30	월 157만원 이상
코리아맨파워시스템 (영랑호리조트,골든비치)	10명	룸메이드	주5일 08:30~17:30	월 157만원 이상
	10명	웨이터,웨이츄리스	주6일 (06시~13시/ 11시~20시)	월 225만원 이상

-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8년 3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18년 양양교육도서관 제54회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내 용	비고
행복을 전하는 독서엽서 보내기	4.12(목)~4.20(금)	종합 자료실	지역주민 (이용자)	가족이나 친구, 지인등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과 추천하고 싶은 책을 직접 엽서에 손글씨로 적어 보냄(도서관에서 일괄 보냄)	우수작품 상품 증정 (참가기념품 증정)
체험프로그램 "알콩 달콩 동화나 라"	4.14(토)~4.15(일) 14:00~16:00	교육 1실	유아 및 초등저학년	1차 : 분홍 애벌레 위글리(4.14.토요일) 2차 : 입이 똥꼬에게(4.15.일요일) 동화구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그림책을 이용한 동화구연과 독후활동으로 창의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키며 책표지로 만드 는 기방을 참가 기념품으로 줌	참가기념품 증정
가족과 함께하는 책 놀이터	4.12(목)~4.18(수) 14:00~16:0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족의 유대감을 높이고자 이야기방에서 가족이 직접 책을 읽어주고, 책표지 자료를 활용하여 기방을 만드는 체험	책표지 기방 재료 증정
책나누美	4.12(목)~4.18(수)	(목)~4.18(수) 1층홀 지역주민 (이용자)		과년도잡지 및 기증도서 무료 배부 및 책교환 행사	1,000여권
권장도서목록 배부 4.12(목)~4.18(수) 1층 홀 지역주민 (이용자)		계층별 신간도서 및 권장도서 목록 배부	200부		
책표지 종이기방 배 부	4.12(목)~4.18(수)	종합 자료실	유아 및 어린이	도서관주간 동안 자료실을 방문하는 이용자 및 신규가입회원에게 책표지로 종이가방 만들기 재료 배부	참가기념품 증정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신고 제도 알림

2017년 6월 3일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3년 1월 21일부터 계속하여 전(田), 답(畓), 괴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 한시적(2017,06,03. ~ 2018,06,02(1년간))으로 농지로 전환(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가 아래와 같이 시행 중이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8년 6월 2일 한

□ 신청자격

- 1. 적법한 절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3년 1월 21일 이후부터 계속 하여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
- 2. 불법전용산지 행위시점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기간 이내에 발생 한 경우에는 사법처리 후 신고 수리
- 3. 개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법을 적용치 않고 불법전용산지 신고만 으로 처리(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 4.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
- 5.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 6.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 **신청방법**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에 서류 접수

□ 신청서류

- 1.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
- 4. 토지이동신청서 1부
- 5.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 서류 1부
- 6.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문 의: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산지허가담당(☎033-670-2474)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알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2018. 4.13 ~ 5. 2(20일간)

- 장 소 : 군청 지적정보부서 및 토지소재지 읍 · 면 민원실

- 신청방법: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부서 ☎033-670-2789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1차 신청안내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 □ **접수기간**: 2018년 4월1일~5월31일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전년도 (17.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가구소득 중 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o 신청인: 아내명의 신청원칙(배우자, 직계존속 대리기능)

0 제출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 · 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각각) 1부.
- 신청인(아내명의) 통장사본 1부.
- □ **지원내용**: 가구당 월 5~14만원(처등지원), 3년간 지원. ※여성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 추가

	(단위 : 천원)	
기준중	지원액	
기 준	소 득금 액(2인)	(월)
100%이하	~2,847	120
100%초과~150%이하	2,848~4,270	80
150%초과~200%이하	4,271~5,694	50

□ 문 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 033-670-2162



2018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

차수	일 정	주차	주간반	야간반
1차	1, 15, ~ 2, 9,	4	컴퓨터 기초	컴퓨터 기초
휴강	2 12 ~ 2 16.	1	설인	연휴
2차	2, 19, ~ 3, 30,	6	한글2010	한글2010
3차	4, 2, ∼ 5, 11.	6	엑셀2010	엑셀2010
4차	5. 14. \sim 6. 22	6	파워포인트2010	파워포인트2010
5차	6, 25, \sim 8, 3,	6	동영상편집 기초	사진편집 기초
방학	8. 6. \sim 8. 24.	3	바하	
6차	8, 27, \sim 10, 5,	5	한글2010	한글2010
휴강	9, 24, \sim 9, 28,	1	추석 연휴	
- 7차	10. 8. ~ 11. 9.	5	엑셀2010	엑셀2010
8차	11. 12 ~ 12. 14.	5	파워포인트2010	파워포인트2010

※ 강좌별 신청자가 15인 미만일 경우 강좌개설 불가

과정명	1주차	2주차	3주차
-1-7	화면구성요소,	데이터 입력 및 편집,	셀 서식, 조건부 서식,
	워크시트&셀 다루기	자동 채우기, 카메라 기능	표 서식, 자동 서식 지정
한글 2010	4주차	5주차	6주차
2010	차트 페이지레이이웃	수식 기초 및 함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창관리/출력	(날짜, 수학, 통계 등)	자동화 문서(매크로 등)

□문의: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부서 033-670-246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 □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 귀난치성 질환)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인 국민이 소득 대비 20%를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 **지원내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액본인부담금, 선별 · 예비 급여. 비급여의 50% 지원(연간 2000만 원 한도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최대 1천만 원)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2018년1월1일 이

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시(1577–1000, www.nhis.or.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강원도 최저임금 사업장 4대보험료 전액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2월

□ 접수기간 :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25일까지

12월은 사전고지, 읍면사무소신청

□ 지원대상: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가입 원칙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자를 원칙으로 지원

□ 지원내용: (정부지원 제외) 시업장 부담분 4대보험료 전액

□ 문 의: 경제도시과 ☎033) 670-2978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8. 3.15.(목) ~ 4.23.(월)

○ **공모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취업 · 일자리	▶ 청년 · 경단자 ·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및 안전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신산업	▶ 신기술 ·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기 년 활동	창업 · 입지 · 고용	▶ 기업 입지, 벤처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필증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o 제출 서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o 제출 방법: 행정안전부 전자우편(realcalla@korea.kr) 또는 우편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이 시상내역: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수상자: 개인, 기업, 단체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18.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신고 ·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 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 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없음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 · 경정 통지전까기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2018년 양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2

양양군수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67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849억원보다 1,17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이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11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5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7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9.59%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전체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통합재정수 지는 낮은 반면,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에 비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자체수입 증대 및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재정 자립도 및 예산규모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y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최대영 (O33-670-2110)





울창한 산림, 후손에게 대물림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봄철 신불조심기간: 2월 1일 ~ 5월 15일



- 1.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는 금지됩니다.
- 2. 산불의 71%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입니다.

